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혜 vs 어리석음 (9:1~18)

I. 서론

1. 8장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음녀의 호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연설을 줌
: 여기서 지혜는 자신의 탁월한 가치와 그의 신적 기원과 활동에 대해 묘사
2. 9장은 첫 번째 본론 (1:8~9:18)의 마지막 부분
: 여인 지혜와 미련한 여인은 거리에 나와서 직접 호소
: 1~8장을 요약하면서 다음 단락 (10:1~22:16)을 준비

II. 여인 지혜의 초대 (9:1~6)

1. 지혜의 잔치 준비 (1~3절): 지혜는 지식, 능력, 존귀, 부를 소유

1) 지혜가 탁월하고 정교한 기술로 큰 규모의 집을 건축 (1절)

지혜가 대궐 수준의 완전한 집을 지었음 ('일곱 기둥')

2) 고대는 집을 짓고 큰 잔치를 하는 것이 관습. 지혜가 성대하고 완전한 축하잔치를 준비 (2절)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더욱 달콤하게 혼합, 잔칫상을 잘 배열

3)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 (3절): 여종들을 보냄 & 자신이 직접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성중 높은 곳'에서 간절히 외치며 초대

2. 어리석은 자를 향한 지혜의 초대 (4~6절): 아직 기회가 있음

1) 어리석은 자: 이리로 돌이키라

2) 지혜 없는 자: 잔치에 오라 ('와서 너의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III. Interlude (막간):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 (9:7~12)

1. 지혜의 책망과 징계에 대한 상반된 반응 (7~9절)

- 1) 거만한 자와 악인 (7,8a절):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의 명예를 손상시킴 (능욕, 흠을 잡음)
- 2)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사람 (8b,9절): 책망하는 자를 사랑. 더욱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짐

2. 지혜의 근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3. 지혜의 유익 (11,12절)

- 1) 장수 ('네 날이 많아질 것'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11절) / 3:2 참조
- 2) 지혜가 주는 생명과 거만이 주는 재앙을 일차적으로 받을 사람은 본인 자신 (12절)

III. 미련한 여인의 초대 (9:13~18)

1. 지혜 결여 (13절)

떠들며 (loud), 어리석어서 (undisciplined), 아무 것도 알지 못함 (without knowledge)

2. 능력과 존귀 결여 (14절)

성읍 높은 곳에서 지혜와 경쟁. 그러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없음
(잔치 상이 없음, 여종을 보내는 일도 없이 그냥 앉아 있음)

3. 재물 결여 (16,17절)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도둑질 한 물' (도둑질)과 '몰래 먹는 떡' (간음)을 약속

4.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들인 자들의 운명 (18절)

미련한 여인의 잔치는 참여한 자들을 죽음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

결론: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